

STORY 휴가지가 된 유배지 제주도

귀양 1번지서 낳은 아이, 제주 뜻하는 '제·영·탐' 이름 지어

김홍준 기자

그 섬에 성이 있다. 추려보면 제주에 성은 더 많지만, 제주읍성·대정읍성·정의읍성 '삼성(三城)'은 삼각형으로 섬을 지켰다. 한라산(1950m)이 가운데 버티고 있다. 왜구를 막고자 했다. 동시에 유배 온 이들의 거점이 됐다. 제주는 유배 1번지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전국의 유배지는 245곳. 유배인은 700여 명에 이른다. 조선 시대에 260여 명이 제주에서 귀양살이했으니, 전체 유배인 수의 3분의 1을 넘는다. 제주는 한양에서 직선거리로만 1158리(455km)로 아득하리만치 멀고, 바다가 가시 돌은 탕자나무처럼 둘러치고 있으며, 계다가 관리에 의한 통제가 수월했다. 그런데 이 제주가 휴가지를 놓고 강원과 1순위를 다툰다. 제주의 마지막 유배인은 독립운동가 이승훈(1864~1930). 1911년의 일이었다. 100여 년 지나 유배 1번지에서 휴가 1번지가 된 제주의 '삼성'에 다녀왔다.



1 정의읍성 남문. 2 제주읍성 동문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동문시장. 3 제주시의 연북정. 4 제주읍성을 끼고 자리 잡은 오현단. 5 제주추사관에 있는 김정희 흉상. 6 대정읍성.

'제주풍토기'엔 해녀 관련 최초 기록 인천-제주 뱃길은 세월호 침몰 후 7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에 다시 열렸다. 지난 1월 3일 제주에 가는 여객선 중 최대(배수량 2만7000t)인 '비온드트루스트'에는 승객 200여 명이 밤바다의 부드러운 바람을 즐기고 있었다. 124년 전 1월, 구한말의 거물 정치인 김윤식(1835~1922)도 배에 올랐다. 인천에서 증기선을 타고 제주로 유배를 가는 중이었다. 명성황후 시해 음모(을미사변)를 알고서도 방관했다는 탄핵을 받았다. 그가 일기 형식으로 제주에서 보낸 3년 6개월을 '속음청사'에 썼다. '광무 2년(1898년) 1월 7일 출항. 배가 바람에 몹시 흔들려 배 안에 있는 어른, 아이가 구토하며 정신을 잃고 쓰러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오직 나만 다행히 면했다...'

조선시대 유배인 3분의 1 제주로 증기선 타고 4박5일 걸리던 뱃길 지금은 여객선으로 14시간30분

김정희 귀양 살던 곳엔 '추사관' 임금 그리던 연북정은 셀카 명소



5

김정(1486~1521)이다. 김정은 기묘사화(1519년)에 연루돼 제주로 유배됐다. 김정은 제주읍성 동문 근처 언덕에서 유배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이때 쓴 '제주풍토록'은 제주의 풍경에 대해 사문 냉소적이다. '불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기후만 해도 그렇다. 겨울에는 혹 따뜻하기도 하고, 여름에는 혹 서늘하기도 하다.' 주로 뱀을 모시는 300여 개의 '요사스러운' 사당이 있고, 한라산 백록담의 움푹한 분화구를 '괴이하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반전이 있다. '이 색다른 곳을 봐야보기도 하고, 이 유별난 풍속을 보게 됨은 세상의 기이하고 장쾌한 일 아니던가.'

그가 제주에서 가장 뛰어난 맛을 자랑하는 것으로 꼽은 건 청굴(靑鱸)이다. 김정은 제주에서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다. '제주풍토록'은 그가 죽기 직전까지 이어졌다. 김정은 송인수(1499~1547)·김상헌(1570~1652)·정은(1569~1641)·송시열(1607~1989)과 함께 유배인이나 부임 관리로 제주 교학 발전에 기여한 오현(五賢)으로 꼽힌다. 이들을 기리는 오현단이 제주읍성을 끼고 있다. 그 너머, 가을이면 갈나무 숲이 장관을 이뤘다는 갈림추색(槭林秋色) 터가 있다. 겨울의 새벽, 제주읍성을 뚫고 난 길에서 자동차는 조심스레 오갔고, 사람들은 종종걸음으로 일터로 향하고 있었다. 제주읍성은 1920년대 제주항을 만든다며 제 몸 2280m 중 대부분을 내주고 170m만 남아 있다.

원나라 왕족·신하 170명이 초기 유배인 김정희(1786~1856)는 한양에서 호남대로를 따라 해남까지 내려갔다. 여기까지는 '해남로'라고도 불렀다. 여기서 제주로 건너가면, 이름이 바

뀐다. '제주'가 된다. 김정희가 유배한 곳은 제주 대정현(현재 서귀포시 대정읍)이었다. 대정읍성 안에 그의 적거지가 있다. 제주추사관은 김정희가 이곳에서 그린 세한도 속 조출한 집 한 채를 그대로 깨내와 현대적으로 재현한 건물이다. 그림 속 소나무·갯나무와 동그란 창까지 가져왔다. 지난 1월 5일 충북 제천에서 온 임병도(76)·김문자(73) 부부가 한가한 걸음으로 추사관을 둘러보고 있었다. 엄씨는 "캠핑카를 개조해서 배에 싣고 20일 일정으로 왔다"며 "어제는 저기, 한라산에 다녀왔는데 무릎이 좀 안 좋은 아내를 못 가서 좀 미안하더라"며 웃었다. 엄씨가 말한 '저기' 한라산은 하얀 눈의 감투를 쓰고 있었다.

섬의 동쪽으로 달려 정의읍성에 올랐다. 성읍민속마을을 품고 있는 정의읍성 성곽 일부 구간은 탐방객들이 올라갈 수 있다. 선조의 7남 인성군(이공, 1588~1628)은 애초에 제주 정의현에 유배가기로 했지만, 전남 진도로 바뀌었다. 그는 역모에 두 번이나 휩쓸렸다.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대신 왕으로 추대하자는 모반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신하들의 탄핵에 인조는 그에게 자진하라고 명했다. 인성군이 죽자 그 가족들은 제주 정의현에 유배됐다. 인성군의 아들 이건(1614~1662)이 이때 '제주풍토기'를 남겼다. 잠녀(해녀)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2월 이후부터 5월 이전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채취한다. 잠녀가 알몸으로 낮을 갖고 미역을 캐어 올리는 데 남 녀가 서로 섞여 있으나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제주풍토기'와 '제주풍토록'에서는 제주민들의 민간신앙, 특히 뱀을 신으로 모시는 것을 개략적으로 적고 있다. 제주시 한경면 당산봉 밑에 차귀당(遮龜堂)이 있었다. 뱀을 모시는 사당이었다. 광양

당(廣養堂)과 함께 제주의 큰 사당이었다. 조선 숙종 28년(1702년) 때 제주 목사 이형상이 태워버린 129개 사당 중 하나였다. 현재 당맞이당이라는 사당이 차귀당 자리에 있다. 당산봉은 제주의 숨은 명소 중 하나다. 정상까지 1시간이면 족하지만, '발아래 풍경이 발을 잡아 3시간 걸린다'는 말이 나오는 곳이다.

회은군(이덕인, ?~1644)도 인조 때 모반과 관련해 제주로 유배 간 왕족이다. 제주를 진작부터 정권 유지를 위한 유배의 섬으로 활용됐다. 원나라는 1273년 삼별초를 섬멸하고 약 100년 동안 제주도를 지배했다. '갯' 계승을 둘러싸고 위협이 될 만한 왕족과 신하 170여 명을 제주도로 유배 보냈다. 제주 유배의 초기 기록이다. 명나라가 원나라를 제압하면서 원나라의 왕족들을 탐라에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입도조(入島祖·섬에 처음으로 정착한 각 성씨의 조상)가 돼 제주 양·안·강씨(氏)의 선조라고 한다.

제주시 연북정(戀北亭). 수백 년 전, 유배인들은 흑시나 자신을 다시 불러줄 임금을 그리워하며 하염없이 북쪽을 바라봤다고 한다. 2022년, 서울에서 휴가 온 가족들은 셀카를 찍고 북쪽 바다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연북정 어귀에 꽃이 피었을 게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